

2025
Vol. 2
통권 제21호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 INSIGHT

세종인사이트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RESEARCH INSTITUTE

2025
Vol. 2



CONTENTS

- 01 국제도시로 가는 길: 교류 거점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다 | 지 남 석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02 세종시 잠재 위험 예측과 시민 안전망 구축 전략 | 송 양 호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03 세종시 로컬푸드 안전성 고도화 방안 | 서 환 석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I. 논의 배경

● 세종시의 국제화 전략 필요성

- 최근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 브랜딩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제 사회는 분권화와 지역화를 강화하며,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와 협력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임
-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설의 국가적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로, 글로벌 수준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 및 도시 브랜드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 최근 아시아뿐 아니라, 영국, 불가리아 등 유럽권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외교 범위를 다변화하고자 함

● 새로운 계획 수립시점 도래

- 세종시는 2012년 출범과 동시에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화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동 조례에 따라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함
- 한편, 기존 계획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함

II. 국제교류 개념과 필요성

● 국제교류

- 국제교류란, 국가 간 문화·관광·예술·정보·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류사업을 의미함
- 언어, 인종, 이념, 체제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간에 우호적으로 협력과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관련 주제 간에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추진하는 각종 협력관계임
- 국제교류의 필요성은 크게 i) 도시 역할 강화, ii)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iii) 시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자치단체 간 상호 합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함
- '교류협력(=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의미함
- '우호협력'은 교류협력을 체결하기 이전의 협력 관계이며, 양 지방정부가 협력 및 교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함
- 교류협력(자매결연)은 행정적 결연관계이며, 우호협력은 교류협력(자매결연)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라 볼 수 있음

III. 세종시 국제교류 현황과 시사점

● 국제교류 현황

- 2024년 12월 기준 세종시 국제교류 현황은 자매도시 1개, 우호협력 체결 4개국 5개 도시, 우호협력 의향은 4개국 4개 도시 등으로 조사됨

[표 1] 세종시 국제교류 관련 체결 국가

구분	대상	체결일자	비고
자매도시	불가리아 소피아	'24.10.09.	
우호협력 체결	중국 산시성	'15.05.22.	문화예술, 체육, 경제 등 포괄적 협력 약속
	중국 구이저우성	'16.07.07.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17.06.30.	
	튀르키예(터키) 앙카라	'18.02.06.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23.08.07.	
우호협력 의향	브라질 브라질리아	'17.06.30.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17.06.30.	
	캄보디아 바탐방주	'22.03.30. '20.08.13.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24.11.06.	

● 국제기구 가입 현황

- 세종시는 출범 직후인 2012년에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NEAR)의 정식 도시로 가입함
- 호혜·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의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됨
- 2024년 6월에는 세계대도시협의회 (World Association of the Major Metropolises) 의 도시 가입을 정식 승인받음
- 세계대도시협의회는 세계 대도시들이 직면한 공동문제 해결과 대도시간 국제협력, 교류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세종시는 가입요건(자격)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행정수도 가능성을 인정받아 도시가입이 최종승인됨

● 세종시 추진체계 현황

- 세종시 기획조정실 산하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총 4개 팀 (의회협력, 대외협력, 미래수도, 국제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교류 관련 업무는 국제협력팀이 전담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광주 등은 최소 14명 이상의 인력과 세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세종시는 여전히 성장 단계에 있는 도시지만,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서의 목표와 역할을 고려할 때 인력 및 조직 강화가 불가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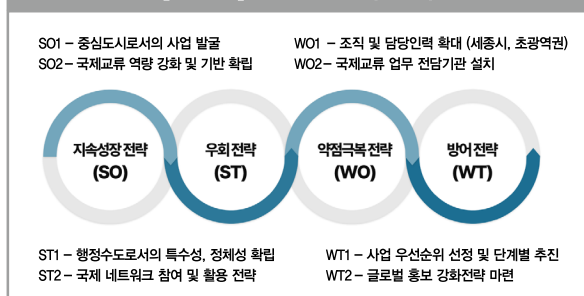
1) 이 글은 2024년 운영과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용역>의 결과에 기반함

국제도시로 가는 길: 교류 거점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다

세종시의 잠재력과 시사점

- 세종시는 국가중추도시,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의 국제교류 수요 증가가 전망됨
- 세종시가 하나의 국제적인 정책 단위가 되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사무영역의 확장과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글로벌 차원의 심화되는 도시간 경쟁 속에서 행정수도이자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서, 세종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정·국제교류 기능 강화 및 육성 전략이 필요함

[그림 1] SWOT 분석 전략



[표 2] 전략별 추진과제 도출 결과

4대 전략	추진과제
1. 국제교류 체계 구축	1-1. 국제교류센터 설치
	1-2. 국제기구(행사) 유치·활동 강화
	1-3. 글로벌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2. 거점도시 환경 조성	2-1. 국제스포츠포럼 개최 준비
	2-2. 한글진흥 확산을 위한 거점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2-3. 국제적 박물관단지 조성
	2-4. 공공마이스 특화도시 육성
3. 교류 협력 프로그램 확대	3-1. 국제홍보 강화
	3-2. 실리적·전략적 외교를 통한 국제교류 강화
	3-3.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3-4. 관내 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4. 민간교류 활동 지원	4-1. 국제행사 지원 체계 구축
	4-2. 국제 공동전시 및 학술대회 개최 추진

전담기관(센터) 설치

- 본청의 조직 확충과는 별도로 국제교류 관련업무를 전담 추진하는 「(가칭) 국제교류센터」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음
- 국제교류 전담기관은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민간영역과 국제교류 관련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담 추진할 수 있으며, 기관 설치 과정에서는 시 조직 및 담당부서와의 업무분장이 필요함
- 향후에 세종시가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국제교류 조례 외에 추가적으로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함

단계별 조직·인력 확충 전략

- 1단계 제안(단기안)
: 세종시 국제교류·협력 담당 조직·인력 증원 추진
- 2단계 제안(중기안)
: 세종시 경제부시장 직속 투자유치단의 국제통상 기능 강화 차원에서 국제교류와 협력 업무도 이관하는 조직개편 추진
- 3단계 제안(장기안)
: 경제부시장 직속기구로 지방외교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대내외적 국제교류와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투자유치 증진효과 도모

[그림 2] 단계별 전략(안)



IV. 구상 및 전략 도출

미션

“우리나라 국가중추기능도시이자 미래전략수도로서, 국제교류를 선도하는 지방외교 거점도시를 완성함”

4대 전략

- ① 국제교류 체계 구축
: 도시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조직, 시스템적 기반을 구축함
- ② 거점도시 환경 조성
: 공간과 시설 및 인프라 측면에서의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함
- ③ 교류협력 프로그램 확대
: 증가하는 국제교류 수요에 대응하여 국제교류 수요에 대응하여 국제교류와 협력 프로그램 도입을 확대함
- ④ 민간교류 활동 지원
: 시민과 대학, 민간기관, 비영리활동 등의 협력활동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민간 우호 증진을 도모함

추진과제 도출

- 세종시청 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취합한 13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이를 4대 전략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I. 선제적 위험관리 연구의 필요성

● 급격한 도시 팽창의 위험성

- 급격한 도시 팽창은 경제 활력과 도시 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기존 도시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인프라 구축 속도가 인구 유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새로운 도시 구조에 걸맞은 안전 시스템이 미처 정착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장통'으로서의 위험에 해당함

● 세종시 지역 간 발전 격차

- 세종시 신도시 지역은 고층 건물, 새로운 기술 인프라와 관련된 위험이 부각되는 반면, 읍면지역은 노후 시설·농업 관련 사고·자연재해 취약성 등의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음
- 이러한 지역 간 발전 격차는 안전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고령화·인프라 노후화는 해당 지역의 재난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된 포괄적인 안전 대책 수립이 요구됨

● 세종시 맞춤형 안전 관리 전략 수립

- 본 연구는 세종시의 특수한 도시 환경을 배경으로,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시민의 목소리를 결합한 다차원적 위험 진단을 통해, 세종시 맞춤형 안전 관리 전략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셋째, 미래 예측 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과 취약 지역을 도출하였음

-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환경(Environmental), 정치(Political), 가치관(Values)의 6개 영역을 분석하는 STEEP+V 방법론을 적용하여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위험/취약요인의 지역적 분포와 집중도를 시각화하였음

● 통합적 접근의 장점

- 이처럼 정량적 데이터·시민의 인식·미래 예측을 융합하는 통합적 접근은 특정 위험에 대한 단편적 이해를 넘어, 위험의 현재 상황·주민 체감도·미래 변화 양상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위험 분석 결과

- 다각적인 위험 분석 결과, 세종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취약점,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위험, 그리고 도시 성장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 표는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와 기존 읍면지역 간의 주요 위험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차별화된 안전관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표 1] 신도시(행복도시) vs 읍면지역 주요 위험 특성 비교

위험 유형	구분	신도시(행복도시) 특성	기존 읍면지역 특성
자연 재해	풍수해	주요 우려 도로 및 저지대 침수, 신규 개발지 배수 문제	농경지 침수, 하천 범람, 노후 배수시설, 산사태 연계 위험
	폭염	취약 요인 높은 도로열, 녹지조성초기그늘부족, 1인 가구 증가	고령층 인구 집중, 농업 등 야외 작업 환경
인적 재난	교통 사고	주요 원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위험 주행, BRT 중심 도로 구조, 교차로 사고	도로 인프라 부족 및 노후,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 사고, 농기계 사고
	생활 안전	주요 사고 물 사고 (영유아, 주부 대상), 고층 공동주택 관련 사고 (전기차 화재 우려 등)	열상, 추락(산업단지 인근), 상해, 동물/곤충 사고 (조경산업 발달 지역)
사회·환경적 위험	범죄	주민 우려 청소년 비행, 상가 골목 등 취약 공간, 신종 범죄(사이버)	빈집 증가 및 슬럼화 우려, 외국인 밀집 지역 불안감
	환경 오염	잠재 위험 대기오염(차량 증가), 크린넷 노후화, 생활폐기물	농약·화학비료 사용, 축산 폐수, 산업단지 유해물질, 불법 쓰레기 투기
	시설 안전	취약 시설 지하 매설물 (싱크홀 우려), 스마트 시설 노후화, 대규모 공동주택	노후 건축물, 노후 산업단지 시설, 방치된 개발 현장

II. 세종시 다차원 위험 요인 진단 및 분석

● 본 연구는 세종시의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분석 방법론을 채택하였음

● 첫째,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위험 수준을 파악하였음

- 행정안전부가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해 타 도시와의 상대적 안전도를 비교하고, 최근 5년간의 재난·사고 통계 및 미래 위험목록을 분석하여 주요 피해 발생 현황과 취약 분야를 도출하였음
-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미래 기후변화가 세종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예측하였음

● 둘째, 정성적 분석을 통해 통계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주관적인 위험 인식과 잠재적 불안 요인을 심층적으로 발굴하였음

- 세종시민 및 각 읍면동의 이·통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 요소와 지역별 특수 위험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1) 이 글은 2024년 행정안전부의 발주로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수탁과제 [지역 위험발굴·분석 및 확산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III. 연구 발견점과 구체적 실행 전략

● 본 연구는 세종시의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변화까지 예측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핵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세종시 안전 정책 수립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맞춤형 안전 정책 수립의 중요성 확인

- 본 연구는 지역안전지수, 재난 통계, 주민 인식, 미래 환경 변화 예측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종시가 직면한 현재와 미래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
- 이는 과거의 사고 발생 통계에만 의존하거나 단편적인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특히,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확인하였음

● 신도시와 읍면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안전 전략의 필요성 제시

- 세종시는 국가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행복도시와 기존의 농촌 특성을 지닌 읍면지역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연구 결과, 이 두 지역은 인구 구성·산업 구조·주요 기반 시설·생활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주요 위험 요인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 또한 다르게 나타났음
- 예를 들어, 행복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나 고층 공동주택 화재와 같은 새로운 도시형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은 반면, 읍면지역은 노후된 도로 인프라로 인한 교통사고·풍수해·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더 크게 나타났음
- 따라서 세종시 전체에 획일적인 안전 정책을 적용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원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안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임을 재차 확인하였음
- 이는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데, 다양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수용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주민 체감형 안전 정책 발굴 및 구체적 위험개선 사업 제안의 과학적 근거 마련

- 본 연구는 통계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실제적인 불안감과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하였음

- 주민들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폭염, 도로교통사고, 산사태 등에 대해 높은 위험도를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신도시와 읍면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위험 유형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우려 지점이 다르게 나타났음
- 이러한 주민 체감 위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로 침수 예측 및 우회 유도 시스템 구축, 교차로 신호 간격 조절, 영유아 보호자 안전 캠페인, AED 설치 지원 근거 마련,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반 강화, 공동주택 화재 예방 사업 등 시민들이 실제로 안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11가지 구체적인 위험개선 사업모형을 제안하였음
- 이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후변화 및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시급성 강조

-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세종시 역시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래 세종시의 폭염일수 및 열대야일수가 급증하고, 국지성 호우와 가뭄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예측하였음
- 이는 온열질환자 증가, 농작물 피해, 풍수해 및 산사태 위험 증가 등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
- 또한, 읍면지역의 지속적인 고령화, 행복도시의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만들어내고, 이에 따른 맞춤형 안전 대책을 요구됨
- 다시 말해 미래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안전 계획 수립과 선제적인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함
- 다양한 위험 요인과 개선 방안들은 특정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에, 교통·환경·복지·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부서 간 협력과 민관 협치를 포함하는 통합적 안전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함을 수록하였음

●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및 안전 문화 확산

- 재난·안전은 행정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의식 향상이 필수적임
-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안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안전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 시키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함



I. 논의 배경

● 세종형 로컬푸드

- 세종시는 농산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환경 친화적 실천 농가 육성, 생산을 배려하는 소비 등의 도농 간 신뢰와 상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로컬푸드의 핵심 가치가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자가 수요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이며,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서 안전성에 대한 고도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세종형 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구축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의 현안을 해결하고 향후 환경친화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점에서 단계적인 로컬푸드 안전성 고도화 방안을 모색함

II. 로컬푸드 정책동향 검토

● 국내 로컬푸드 정책동향

-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2022~2026)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저탄소, 가치소비 실천을 비전으로 직거래 규모의 확대와 먹거리 지수 상위등급 지자체의 비중을 높이는 질적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직거래 인증제 활성화와 안전성 관리 및 연구개발(R&D) 등의 실천계획을 제시하면서, 지자체가 농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 원산지 등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로컬푸드 인증제 확대를 제안
- 안전성 관리 및 연구개발에 있어 직거래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직거래 농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제시

● 세종시 로컬푸드 정책동향

- 세종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2023~2027)에서 세종시는 건강한 미래 먹거리 구축을 위한 2030 먹거리 보장 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을 세움
- 세종시 푸드인증제 및 안전관리 강화에서 생산·출하 규칙을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유전자변형 농산물 종자 및 유기합성 제조제 사용을 금하는 것으로 안전성 관리 기준을 제안함

III. 세종시 로컬푸드 여건 및 운영 현황

● 농업생산 개황

- 2023년 국가통계포털 기준 세종시 농가인구는 13,72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5%를 차지함
- 2017년 대비 전체 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한 반면, 농가인구는 연평균 0.8% 감소하였음
- 세종시 전체 면적 대비 경지면적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경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14.1%인 6,814ha임
- 세종시 부류별 재배면적은 식량작물이 65.6%, 과실류 15.0%, 채소류 11.5%, 특용작물 8.0% 순임(2023년 기준)

● 농업경영체 현황

- 연령별 현황('23)에 따르면 60대 36.8%로 가장 많으며, 65세 이상의 고령농이 50.7%, 39세 미만의 청년농은 3.0%로 나타남
- 0.5ha 미만의 농업경영체 비중('23)은 전체 77.1%이며, 지역별로 조치원읍 88.5%, 부강면 84.4%, 연기면 82.5% 순임

● (주)세종로컬푸드 운영 현황

- 누적 매출액('24)은 약 2,459억 원이며, 참여농가 수는 1,386호, 소비자 회원은 2018년 약 3만 5천 명에서 약 7만 9천 명('24)으로 두 배 정도 성장하였음
- 세종시 출하농가는 674농가이며, 지역별로 연서면 출하 농가가 156농가로 가장 많으며, 금남면 119농가, 연동면 100농가 순임('24년 7월 기준)
- 세종시 로컬푸드는 지난 10년 동안 참여농가 수는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단기간 최다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세종시 144개 학교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어린이집 320개소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음('23년 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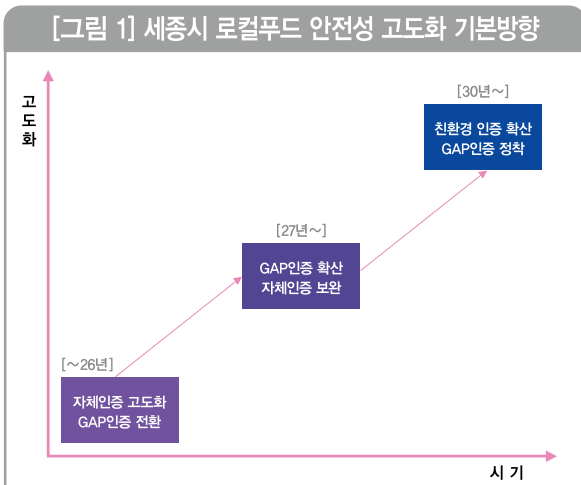
● 세종시 로컬푸드 안전성 운영 검토

- 세종시는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해 직매장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안전성 검사체계는 생산단계(규제검사)와 유통단계(모니터링)로 구분하며, 매년 관련부서와 사업량 협의 후 세부 계획을 수립, 생산 및 유통단계의 농산물 시료 채취 후 정밀 분석 시행하고 있음
- 세종시 로컬푸드 생산단계의 안전성 검사는 수거하는 수거기관과 검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총괄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의 잔류농약검사 건수 역시 사전검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세종시의 로컬푸드 안전성 기준을 현재 자체검사서에서 GAP 기준 이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단계별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IV. 로컬푸드 안전성 고도화 방안

● 세종시 로컬푸드 안전성 고도화 기본방향

- 푸드플랜의 확대 및 공공형 관계시장인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확산되고 있음
- 로컬푸드의 공급확대와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지역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 내 먹거리 주권을 실현하고 관계시장으로의 확대 측면에서 보편적인 안전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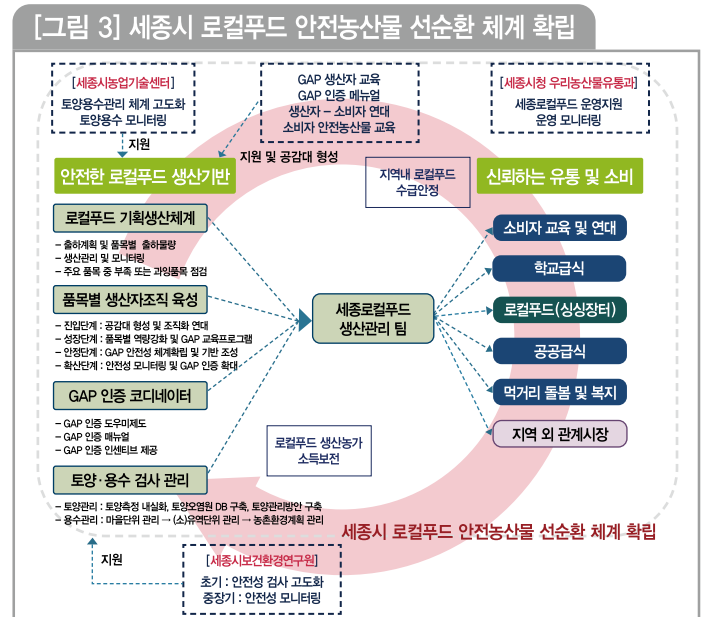
● 단계별 고도화 방안

-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로컬푸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다만,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GAP 수준 이상으로 단기간에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유형별 생산농가의 실천 가능성,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성, 세종시 로컬푸드 주체의 관리 효율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체계적인 고도화 방안을 제안함
- 세종시의 로컬푸드 안전성 기준을 현재 자체검사서에서 GAP 기준 이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로컬푸드 안전성 체계 확립방안

- 로컬푸드는 생산, 가공, 소비까지 지역 내 소비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먹거리 체계로서 큰 가치를 지님
- 로컬푸드는 지역을 살리는 전략 방향으로 중소농을 중심으로 현실을 고려한 실천 방안,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적 편익을 주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먹거리 계획과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해야 함
- 자체인증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과 향후 GAP 기준 이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 사항과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 과제가 마련되어야 함



- GAP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생산관리에서 GAP 안전 생산·유통 지원체계 구축, 품목별 조직화, 마을단위 단체인증 확대, GAP 인증도우미 사업, GAP 리벨용지 시범사업의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관내에 GAP 인증기관을 설치하여 지역 내 먹거리 안전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토양 및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 개별 농업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https://www.dsi.re.kr>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소담동)

Tel. (044) 550-3500 Fax. (044) 555-3599

발행인. 김영진 편집인. 이인희 등록번호. 대전유성, 바00015